

ABOUT 미술세계 >

MAGAZINE 월간 미술세계 >

GALLERY 갤러리 미술세계 >

ACADEMY 미술세계 아카데미 >

DATABASE 미술세계명감 >

COLLECTION 현대미술작가총서

NEWS 소식지 >

SUPPORT 고객지원 >

Facebook

Twitter

Email

REVIEW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 성민경

스테이징 필름: 비디오 아트,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
2.2-4.17/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한스 옴 드 비익, <Staging Silence(2)>, 비디오, 20분 48초, 2013

영화와 비디오 아트,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열렸다. 사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커다란 문화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영상예술의 저변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적 형식을 갖춘 비디오 아트 작품을 다수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영상예술로의 초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와 관객 모두에게 영화와 비디오 아트는 극장과 미술관이라는 상영장소의 차이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이라는 공간은 관객의 신체를 한자리에 고정시킴으로써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에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다. 반면,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아트, 혹은 영상설치 작품은 관객에게 무한한

ABOUT 미술세계 >

MAGAZINE 월간 미술세계 >

GALLERY 갤러리 미술세계 >

ACADEMY 미술세계 아카데미 >

DATABASE 미술세계명감 >

COLLECTION 현대미술작가총서

NEWS 소식지 >

SUPPORT 고객지원 >

Facebook

Twitter

Email

건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선택의 권리보다 강압적인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에 훨씬 더 익숙한 것처럼 보인다.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일반 관객이 영화처럼 영상 전시를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디오 아트 작가들은 다양한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항상 목이 마르다.

이번 전시 작가 중 한 명이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한 바 있는 이란 작가 쉬린 네샤트(Shirin Neshat)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관객은 주로 미술 관계자들이지만, 영화는 좀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나 미술관을 벗어나 영화에 진출하면 미술이 생소한 일반 관객도 찾아와 다양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면서, 영화에 관심을 둔 것은 좀 더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전시된 <황홀(Rapture)>(1999)은 네샤트의 초기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남성과 여성을 듀얼 스크린으로 분리시키고 관객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율적인 편집을 촉구한다. 이러한 설치 방식은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전통적으로 상정한 남녀 분리라는 성정치학적 논제들을 시각적이고 개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문경원·전준호 작가는 ‘카셀 도큐멘타 13’에서 처음 공개했던 <세상의 저편(EI Fin Del Mundo)>(2012)을 내놓았다.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된 이 영상작품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변해 버린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다룬 13분 35초짜리 픽션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영화배우 이정재, 임수정이 출연한 이 작품은 100년 뒤 인간 세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묻는다는

美術世界

SINCE 1984

ABOUT 미술세계 >

MAGAZINE 월간 미술세계 >

GALLERY 갤러리 미술세계 >

ACADEMY 미술세계 아카데미 >

DATABASE 미술세계명감 >

COLLECTION 현대미술작가총서 >

NEWS 소식지 >

SUPPORT 고객지원 >

 Facebook Twitter Email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12점의 비디오 아트 작품은 형태적으로 싱글채널, 2채널, 그리고 다채널 비디오 설치작업 등 다양한 영상방식을 보여준다. 내용에 있어서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형식의 차용, 무빙 이미지 등 공간과 이미지의 체험전이라는 전시 타이틀에 걸맞게 영상예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이미 비디오 아트에 친숙한 관객에게도 앙리 살라(알바니아), 빌 비올라(미국), 한스 옵 드 비익(벨기에), 쉬린 네샤트(이란), 문경원·전준호, 정은영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대표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 비디오아트, 스테이징 필름, 부산시립미술관

We were unable to load Disqus. If you are a moderator please see our [troubleshooting guide](#).

THIS DIRECTORY

REVIEW 두려움과 마주하기 >

REVIEW 젊은 예술가들의 치열한 생태계가 불러온 새로운 활력 >

REVIEW 밤에도 사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

REVIEW 시대를 관통하는 자화상 >

REVIEW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